

정신지체아의 사회적응기술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조인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한옥희

대구 월성초등학교

《요약》

본 연구는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밝혀 보다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형성으로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양육태도를 시사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를 밝히고, 둘째,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가장 높고,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 순이다. 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는 고연령, 고학력, 고수입, 종교를 가졌을 경우, 첫째 자녀, 초등부자녀, 남자일 경우 더 애정적·자율적이다.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은 평균 이하로, 놀이활동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성 일반, 규칙과 법, 대인관계, 자기존중, 자기보호, 책임감 순이다.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에는 상관이 있다. 자율적 양육태도에서는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 전반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주제어 : 정신지체아, 사회적응기술, 부모양육태도

1. 서론

1. 연구의 의의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만나게 된다. 가정, 사회,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은 인간을 성장, 발달하게 하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숙된 한 사람으로 사회에 존재하게 한다. 이러한 요인 중 '가정'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고 사회화를 시키는 최초의 교육 장소라고 하겠다. 특히, 특수교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교신저자(ischo@daegu.ac.kr)

육에 있어서 부모가 주축이 된 가정환경은 특수교육의 시작이며, 교육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 적응 참가로 경제적·직업적 안정을 이루어 자아실현 하는데 있다(조인수, 2005). 이런 교육의 목적은 정인지체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Doll(1941)은 일찍이 정인지체를 사회적 능력의 장애이고 정상이하의 정신능력으로 인해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며 성장기에 나타나고 기질적인 원인을 가지며, 본질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정인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정인지체아 교육의 최대 이슈는 그들의 사회적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조인수, 2005). 즉, 정인지체아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켜 사회에 적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인지체아는 두뇌 손상으로부터 생긴 여러 가지 문제 즉,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작 문제, 개성 그리고 동기적 특성과 같은 그 상태의 존재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적응행동 문제를 야기한다(조인수, 2005). 그러므로 정인지체아에게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인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의 곤란은 어느 특정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인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의 습득은 최초의 사회화 환경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부모는 최초의 교육의 장에서 만나는 첫 인간관계로서 자녀의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성격, 태도, 가치능력, 자아, 동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Freud와 Erikson(1950)은 가정환경의 여러 변인 중 부모의 존재 유무 및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은 어린이의 지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인격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정인지체아는 지적 발달이 늦고 적응행동이 부족하여 다른 어떤 장애보다 가정의 보살핌,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그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모는 장애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에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발달의 각 시기에 알맞은 교육과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조인수, 권영화, 2004).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조인수, 권영화, 2004).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외영(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부모-교사 평정 점수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 중 안정성, 협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과민성, 비협조성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 모순 불일치적, 익애적 일수록 부모-교사 평정 모두에게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중 안정성, 협조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과민성, 비협조성은 높게 나타났다. 원영미(1990)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합리적,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성취동기, 인기도 및 사회성 등과 정적인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재훈(2000)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가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이것은 어머니의 취업, 학력, 가족형태 등에 관계없이 애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정이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형태로 점차 변화됨에 따라 부모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 역할 개념의 변화로 아버지들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사 일을 분담하여야 된다는 개념이 싹트게 됨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미리 준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조인수, 2005).

따라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부모·자녀간의 관계 형성으로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에 도움이 될 양육태도를 시사할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 등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을 밝히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를 밝힌다.

둘째,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을 밝힌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밝힌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 소재하는 6개교의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정인지체아동 중 일반가정에서 등교하고 있는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락표집 방법에 의하여 각 학교별로 초등부 각 30명씩 표집하여 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122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내용을 분석하던 중 설문지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2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00명의 정인지체아 부모와 각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특성의 구체적인 분포는 <표 2.1>과 같다.

<표 2.1> 연구 대상 분포

	구 분		대상수(N)	빈도(%)
정신 지체아	학 년	초 1·2학년	22	22.0
		초 3·4학년	25	25.0
		초 5·6학년	18	18.0
		중 1학년	11	11.0
		중 2학년	10	10.0
		중 3학년	14	14.0
	성 별	남 자	58	58.0
	여 자	42	42.0	
	전 체	100	100	
부 모	연 령	30세미만	11	11.0
		40세미만	37	37.0
		40세이상	52	52.0
	학 력	중졸이하	14	14.0
		고졸이하	57	57.0
		대졸이상	29	29.0
	수 입	200만원미만	48	48.0
		300만원미만	38	38.0
		300만원이상	14	14.0
	종 교	유	68	68.0
		무	32	32.0
	자 녀 성 별	남 자	58	58.0
		여 자	42	42.0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34	34.0
둘째부터		66	66.0	
	전 체	100	100	

연구 대상인 정인지체아는 <표 2.1>에서와 같이 초1.2학년 22명(22.0%), 초3.4학년 25명(25.0%), 초5.6학년 18명(18.0%), 중1학년 11명(11.0%), 중2학년 10명(10.0%), 중3학년 14명(14.0%)으로 초3.4학년이 가장 많다. 그리고, 정인지체아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40세 이상이 52명(52.0%)으로 전체 대상자중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세 미만 37명

(37.0%), 30세 미만 11명(11.0%) 순으로 나타나 주된 연령이 40세 이상이었다.

최종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모가 57명(57.0%),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부모가 29명(29.0%), 중졸이하가 14명(14.0%)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다. 월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48명(48.0%), 300만원 미만이 38명(38.0%), 300만원 이상이 14명(14.0%)으로 각각 나타나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를 가진 부모님이 68명(68.0%), 종교가 없다는 부모님이 32명(32.0%)으로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부모님이 더 많았다. 자녀 중 정신지체 자녀의 출생 순은 첫째가 34명(34.0%), 둘째부터가 66명(66.0%)으로 둘째부터가 장애를 가진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정신지체 자녀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58명(58.0%)이며, 여자가 42명(42.0%)으로 남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 도구

연구의 조사도구는 2가지 종류의 질문지로서, 첫째,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지, 둘째, 정신지체아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지이다.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조사 도구는 Schaefer(1959)의 어머니양육태도검사도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 MBRI)를 이원영이 번안하여 만든 양육태도 검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경례(1994), 정화주(2002)에 의해 사용된 도구를 참고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로 제한하고,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의 질문지로 재구성하였다. MBRI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태도의 경향성을 상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론을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향성을 평정 척도에 의해 수량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사지의 구성 영역과 내용은 <표 2.2>과 같다.

<표 2.2>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구성

하위 요인	질문지 번호	문항수
애정적 태도	1 ~ 12	12
거부적 태도	13 ~ 24	12
자율적 태도	25 ~ 36	12
통제적 태도	37 ~ 48	12
총 계		48

질문지의 형식은 5단계의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내용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중간 정도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하위요인 중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5)번 방향이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각 단계마다 (5)번부터 5, 4, 3, 2, 1의 점수를 주었으며,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1)번 방향이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1)번부터 5, 4, 3, 2, 1의 점수를 주어 계산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2) 사회적 능력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조사 도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이 개발한 KISE—SAB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Scales of Adaptive Behavior) 검사 중 사회적 적응행동검사 도구이다. KISE—SAB의 문항 구성내용은 3개의 검사영역 즉, 개념적 적응행동 검사, 사회적 적응행동검사, 실제적 적응행동검사와 23개의 소검사, 242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검사영역 중 사회적 적응행동검사로만 제한하며, 그 구성내용은 7개의 소검사와 68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단계의 평정척도로 측정하며 사회적 능력 문항 구성은 아래 <표 2.3>와 같다.

<표 2.3> 사회적 능력 문항 구성

하위 요인	질문지 번호	문항수
사회성 일반	1 ~ 10	10
놀이활동	11 ~ 20	10
대인관계	21 ~ 30	10
책임감	31 ~ 40	10
자기존중	41 ~ 49	9
자기보호	50 ~ 58	9
규칙과 법	59 ~ 68	10
총 계		68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근

무하고 있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태를 임상적으로 판단한 다음, 관련 문헌을 수집·탐색하였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관련 문헌 탐색결과 본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2006년 3월 중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정신지체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30명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사전 작성된 예비 조사지를 배포하여 조사지를 수정·보완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 소재하는 정신지체 특수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각 담임선생님과 충분한 설명 후 각 학교 부별로 5명씩을 추천받아 추천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연락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 실시 허락을 받고 180명의 조사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 조사지는 아동의 행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담임교사에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 연구자가 우편으로 대상자 각 가정과 담임선생님께 설문지와 함께 약간의 사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가능한 전량을 회수하도록 하여 총 180명에 대한 각 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2명의 조사지가 회수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응답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한 2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00명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 8월 중에 100명의 설문지를 결과 분석하여 9월에 정리하였다.

4. 자료처리

1) 채점

사회적 적응행동 조사지와 부모의 양육태도 조사지의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채점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2) 통계처리

본 연구는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을 밝히기 위하여 기초통계량인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또한 정신지체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 그리고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 목적에 따라 먼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를 살펴보고, 각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

정신지체아 부모의 변인별에 따른 양육태도는 <표 3.1>와 같다.

<표 3.1> 정신지체아 부모의 변인별에 따른 양육태도

변인	양육태도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전체	
	성별	N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연령	30세미만	11	3.72 (.34)	1.67	3.58 (.83)	2.33	3.38 (.53)	.95	2.72 (.56)	1.14	3.35 (.55)	1.61
	40세미만	37	3.51 (.72)		3.07 (.54)		3.11 (.52)		2.83 (.51)		3.13 (.57)	
	40세이상	52	3.76 (.65)		3.11 (.57)		3.15 (.43)		2.66 (.52)		3.17 (.54)	
학력	중졸이하	14	3.37 (.62)	1.55	2.99 (.75)	1.96	2.82 (.50)	4.05*	2.61 (.54)	.44	2.95 (.27)	5.11**
	고졸이하	57	3.70 (.70)		3.07 (.55)		3.19 (.45)		2.75 (.56)		3.18 (.30)	
	대졸이상	29	3.72 (.62)		3.30 (.54)		3.23 (.47)		2.76 (.41)		3.25 (.28)	
수입	200만원 미만	48	3.53 (.65)	4.27*	3.11 (.63)	1.34	3.02 (.47)	4.61*	2.78 (.54)	1.93	3.11 (.57)	3.32*
	300만원 미만	38	3.65 (.69)		3.06 (.54)		3.21 (.46)		2.76 (.53)		3.17 (.55)	
	300만원 이상	14	4.11 (.51)		3.36 (.51)		3.43 (.40)		2.48 (.27)		3.35 (.42)	
종교	유	68	3.80 (.61)	3.27**	3.16 (.60)	.90	3.19 (.44)	1.15	2.69 (.54)	-1.19	3.21 (.54)	2.13*
	무	32	3.35 (.70)		3.05 (.56)		3.07 (.54)		2.82 (.45)		3.07 (.56)	

<표 3.1>에서 계속

변인	양육태도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전체	
	성별	N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출생순위	첫째	34	3.70 (.59)	.48	3.15 (.59)	.26	3.21 (.50)	.82	2.82 (.51)	.13	3.22 (.54)	1.27
	둘째부터	66	3.63 (.71)		3.11 (.58)		3.12 (.47)		2.68 (.52)		3.14 (.57)	
자녀학년	초1·2학년	22	3.75 (.70)	1.26	3.14 (.61)	.88	3.16 (.54)	.09	2.76 (.59)	.33	3.20 (.61)	.89
	초3·4학년	25	3.62 (.71)		3.23 (.57)		3.12 (.53)		2.67 (.58)		3.16 (.59)	
	초5·6학년	18	3.86 (.52)		3.20 (.47)		3.18 (.42)		2.68 (.50)		3.23 (.47)	
	중 1학년	11	3.70 (.76)		3.21 (.67)		3.21 (.59)		2.80 (.47)		3.22 (.62)	
	중 2학년	10	3.25 (.67)		2.87 (.54)		3.10 (.33)		2.89 (.26)		3.02 (.45)	
	중 3학년	14	3.57 (.59)		2.95 (.68)		3.15 (.38)		2.71 (.47)		3.09 (.53)	
자녀성별	남자	58	3.71 (.64)	.88	3.14 (.57)	.24	3.20 (.44)	1.15	2.73 (.51)	-.01	3.19 (.54)	1.05
	여자	42	3.59 (.71)		3.11 (.62)		3.09 (.52)		2.74 (.52)		3.13 (.59)	
계		100	3.65 (.64)		3.14 (.60)		3.16 (.47)		2.73 (.49)		3.17 (.51)	

*p<.05, **p<.01

정신지체아 부모의 연령에 따른 전반적인 양육태도는 30세 미만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40세 이상의 부모, 40세 미만의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별로 살펴보면 애정적 양육태도에서는 40세 이상(M=3.76), 거부적 양육태도에서는 30세 미만(M=3.58), 자율적 양육태도에서는 30세 미만(M=3.38),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40세 미만(M=2.83)이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만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면 자율적이면서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이 높은 부모일수록 정신지체아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주영(2002)의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자율적이며 애정적이고 관심 지향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조사 대상자가 모에 치중하여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아 부모의 학력에 따른 전반적인 양육태도는 대졸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고졸이하, 중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는 대졸이상

의 경우 애정적(M=3.72), 거부적(M=3.30), 자율적(M=3.23), 통제적(M=2.7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4개의 양육태도 유형 모두에서 중졸이하의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과 양육태도 유형과는 학력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애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자율적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F=4.05, p<.05$)가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전체에서도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F=5.11, p<.01$)가 나타났다. 박광균(2000)의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관에 있어 애정과 통제를 서로 조화롭게 교육하는 권위있는 양육태도를 나타내었으며, 신재훈(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정인지체아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외의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인지체아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며, 부모님 스스로도 자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인지체아 부모의 수입에 따른 전반적인 양육태도는 3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 애정적(M=4.11), 거부적(M=3.36), 자율적(M=3.43) 양육태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F=4.27, p<.05, F=4.61, p<.05$)가 나타났다. 또한 수입에 따른 양육태도 전체에서도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F=3.32, p<.05$)가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 수입이 200만원미만(M=2.78), 300만원미만(M=2.76), 300만원 이상(M=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인지체아인을 대상으로 한 정화주(2002)의 연구에서 보듯이 수입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며, 수입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는 통제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고석원(1996)의 연구에서는 하류계층 부모일수록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상류계층 부모일수록 보다 거부적, 통제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정인지체아 부모의 수입에 따른 양육태도는 전반적으로 3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의 수입일 경우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 양육태도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인지체아 부모의 종교에 따른 양육태도는 종교가 있는 부모의 경우(M=3.21)가 종교가 없는 부모(M=3.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부모의 경우 애정적(M=3.80), 자율적(M=3.19), 거부적(M=3.16) 양육태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t=3.27, p<.01$)가 나타났다. 또한 종교에 따른 양육태도 전체에서도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t=2.13, p<.05$)가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 종교가 없는 부모(M=2.82)가 종교가 있는 부모(M=2.6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신지체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종교가 없는 부모들은 통제적인 양육태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지체아 부모의 자녀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태도는 첫째에 대한 양육태도가 둘째부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애정적(M=3.70), 거부적(M=3.15), 자율적(M=3.21), 통제적(M=2.82) 양육태도 전체에서 첫째가 둘째부터보다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광균(2000)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있어 첫 자녀인 경우에 애정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선연(2002)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녀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태도는 거부적, 애정적, 모순적, 방관적 양육태도에서 둘째부터가 첫째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정신지체아 부모의 자녀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태도는 전반적으로 둘째보다 첫째에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첫째에 대한 양육태도의 유형 중 애정적인 양육태도의 평균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아직도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말이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아 부모의 자녀학년에 따른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초5.6학년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1학년, 초1.2학년, 초3.4학년, 중3학년 중2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초5·6학년(M=3.86), 초1·2학년(M=3.75), 거부적 양육태도에서는 초3·4학년(M=3.23), 중1학년(M=3.21), 자율적 양육태도에서는 중1학년(M=3.21), 초5·6학년(M=3.18),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중2학년(M=2.89), 중1학년(M=2.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학년에 따른 양육태도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정신지체아 부모의 자녀학년에 따른 양육태도는 초등부의 평균이 중등부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전체 모두에서 중2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중2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아 부모의 자녀성별에 따른 양육태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양육태도별로 살펴보면 애정적(M=3.71), 거부적(M=3.14), 자율적(M=3.20)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적(M=2.74)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성별에 따른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심숙희(1987)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들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녀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만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남아 선호사상으로 자녀가 남자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

량을 주며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정신지체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었으며,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종교를 가진 부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태도는 첫째가 둘째부터 보다 평균점수가 높으며,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2.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

정신지체아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은 <표 3.2>과 같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은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놀이활동(M=3.57), 사회성 일반(M=3.42), 규칙과 법(M=2.73), 대인관계(M=2.51), 책임감(M=2.29), 자기보호(M=2.28), 예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존중에서만 여자(M=2.34)가 남자(M=2.33)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2> 정신지체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변인	사회적능력		사회성 일반		놀이활동		대인관계		책임감		자기존중		자기보호		규칙과법		전체	
	성별	N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자	58	3.42 (1.05)	.47	3.57 (1.12)	1.23	2.51 (1.09)	.81	2.29 (1.03)	.96	2.33 (1.17)	-.06	2.28 (.95)	.53	2.73 (.95)	.94	2.73 (.95)	.78
	여자	42	3.30 (1.61)		3.26 (1.37)		2.33 (1.11)		2.09 (1.02)		2.34 (1.16)		2.17 (.99)		2.53 (.99)		2.57 (1.06)	
학년	초1·2학년	22	3.30 (1.13)	.38	3.49 (1.34)	1.73	2.41 (1.06)	1.43	2.11 (.84)	1.40	2.34 (1.08)	.88	2.27 (.82)	1.28	2.55 (.96)	2.09	2.64 (.93)	1.33
	초3·4학년	25	3.15 (1.85)		2.93 (1.26)		2.02 (1.04)		1.86 (1.04)		2.02 (1.20)		1.87 (.89)		2.13 (.97)		2.28 (1.05)	
	초5·6학년	18	3.40 (1.01)		3.50 (1.12)		2.39 (1.00)		2.20 (.98)		2.19 (1.15)		2.17 (.99)		2.94 (1.14)		2.69 (.92)	
	중1학년	11	3.47 (1.33)		3.43 (1.33)		2.71 (1.56)		2.72 (1.59)		2.79 (1.63)		2.50 (1.37)		3.01 (1.52)		2.95 (1.40)	
	중2학년	10	3.40 (.72)		3.61 (1.10)		2.62 (.90)		2.35 (.86)		2.53 (1.02)		2.60 (.91)		2.84 (.90)		2.85 (.76)	
	중3학년	14	3.75 (1.18)		4.10 (.99)		2.90 (.99)		2.47 (.80)		2.54 (.86)		2.42 (.88)		2.92 (.73)		3.01 (.78)	
계	100	3.40 (1.24)		3.49 (1.20)		2.49 (1.09)		2.26 (1.02)		2.38 (1.16)		2.29 (.97)		2.71 (1.02)		2.71 (.98)		

노현숙(1999)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정신지체아의 사회성숙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동행동척도(Child Behavior Scale; CBS)를 이용하여 평가한 안선희(1997)의 연구와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고석원(1996)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학년에 따른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을 분석한 결과 중3학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1, 중2, 초5.6, 초1.2, 초3.4학년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일반에서 중3학년(M=3.75), 중1학년(M=3.47), 놀이활동에서는 중3학년(M=4.10), 중2학년(M=3.61), 대인관계에서는 중3학년(M=2.90), 중1학년(M=2.71), 책임감에서는 중1학년(M=2.72), 중3학년(M=2.47), 자기존중에서는 중1학년(M=2.79), 중3학년(M=2.54), 자기보호에서는 중2학년(M=2.60), 중1학년(M=2.50), 규칙과 법에서는 중1학년(M=3.01), 초5·6학년(M=2.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성 일반, 놀이활동, 대인관계에서는 중3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책임감, 자기존중, 자기보호와 규칙과 법에서는 중1학년과 2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규칙과 법에서는 초5·6학년의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하위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학년은 초3.4학년이다.

이것으로 일반적인 사회성이나 놀이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책임감, 자기존중, 자기보호, 규칙과 법 같은 내면적인 도덕성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과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에서는 사회성 일반(.351, $p < .001$), 놀이활동(.351, $p < .001$), 대인관계(.303, $p < .01$), 책임감(.332, $p < .01$), 자기존중(-.320, $p < .01$), 규칙과 법(.226, $p < .05$)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일반적인 사회성, 놀이활동,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일에 대한 책임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각,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법에 관련된 능력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사회적 능력의 전체(.205, $p < .05$)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3.3>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능력 \ 양육태도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전 체
사회성 일반	.165	-.006	.351***	-.101	.181
놀이활동	.165	-.006	.351***	-.101	.181
대인관계	.133	.012	.303**	-.086	.159
책임감	.140	.029	.332**	-.102	.176
자기존중	.144	-.030	.323**	-.077	.158
자기보호	.141	.002	.320**	-.102	.159
규칙과 법	.074	.077	.226*	.042	.182
전체	.180	.021	.365***	-.107	.205*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노현숙(1999)의 연구에서 정신지체 자녀의 사회성숙도와의 관계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신재훈(2000)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 생활하는 협력 기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영주(1990)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도움, 협동, 나눔, 위로 등의 사회적 행동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아동은 보다 바람직한 대인관계 특성을 형성한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특히,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정신지체아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성 일반이나 놀이활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책임감, 자기존중, 규칙과 법과 같은 내면적인 도덕성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반적으로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종교를 가진 경우, 첫째 자녀인 경우, 초등부인 경우, 남자일 경우에 더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특히, 자율적 양육태도에서는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 전반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며 긍정적일수록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고,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가장 높고,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 순으로 높다. 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는 고연령, 고학력, 고수입, 종교를 가진 경우, 첫째 자녀, 초등부인 자녀, 남학생의 경우가 더 애정적이며, 자율적이다.

둘째,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은 평균이하 수준이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에서는 정신지체아의 놀이활동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성일반, 규칙과 법, 대인관계, 자기존중, 자기보호, 책임감 순으로 높다. 학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은 중3학년의 사회적 능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1, 중2, 초 5.6, 초1.2, 초3.4학년의 순으로 높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대체적으로 높다. 사회성 일반, 놀이활동, 규칙과 법, 대인관계, 책임감, 자기보호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으며, 자기존중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셋째, 정신지체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에는 상관이 있다. 특히, 자율적 양육태도에서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 전반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소수의 아동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다수의 인원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학년을 초등부와 중등부에 국한한 것을 정신지체아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도입되어 일선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좀 더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정인지체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경례(1994). 훈련가능 정인지체아의 아버지 양육 태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석원(1996).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자(2000). 정인지체아·일반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수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선연(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인지체아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욱(2003). **KISE-SAB 요약**. 국립특수교육원.
- 김향지(2003). 정인지체 아동의 사회적 능력 특성 모형: 개념 및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8(3)**.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81-98.
- 노현숙(1999). 부모의 성취압력 및 양육태도와 정인지체아의 사회성숙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광균(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식(2005). 특수교육 전환교육 실행수준과 촉진방안. 문학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신재훈(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정인지체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현기(2002). 고등부 장애학생의 사회적 능력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37(2)**. 113-136.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은주영(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이외영(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자매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2)**. 107-118.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지향(2000). 정인지체아 부모가 지각한 가족기능과 일상 스트레스 대처방식.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전보성(2005). 대인·사회적기능 중심의 전환교육 활동이 정인지체학생의 사회적 능력과 지역사회 적응기술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정화주(2002). 정인지체인의 작업수행과 부모양육태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인수(2005). **정인지체아교육**. 대구대학교출판부.
- 조인수(2005). **전환교육**. 대구대학교출판부.
- 조인수·권영화(2004). **부모교육**. 대구대학교출판부.

- 최경순(1994).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성규(2001). **장애아동 언어지도**. 대구. 한국언어치료학회
- Berger, E.H. (1981), *Parents as Partners in Education*, St. Louis: The C. V. Mosby Co..
- Clark, S., Crase, S. J, & Pease, D. (1979).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 School 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Connolly, J. & Doyle, A. B. (1981).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452-462.**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3), pp. 323-340.
- Lamb, M. E., Hwang, C. P., Brookstein, F. L., Broberg, A., Hult, G. & Flodi, M. (1988). Determinants of social competence in Swedish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58-70.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 - 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New York: Wiley. (P. H. Mussen, General Editor).
- Taylor, R. M., Richards, S. B. & Brady, M. P. (2005). *Mental Retardation*. New York : Pearson Education, Inc.
- Walker, H. M., McConnell, S., Holmes, D., Todies, B., Walker, J., & Goldon, N. (1988). *The walker social skills curriculum : The ACCEPTS Program*, Austin, TX: Pro-ed.
- Zigler, E. & Trikett, P. K. C. (1978). I.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 778-798.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daptive Skills an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ho, In-Soo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Han, Ok-Hee

Daegu Weolsung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e study is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daptive skills an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then is investigate factors of rearing attitud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influencing to their social competenc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aring attitud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is high in order of affective attitude, and autonomous, refusal, control attitude.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variables is more affective and autonomous in order of age, schooling, income, religion, first child, child attending elementary school, and schoolboy.

Second, social competencies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ppear to level of subaverage. Social competencies according to sub-domains is high in order of play activities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social, rule and law, interpersonal skills, self-esteem, self care, and responsibility. Social competencies according to school year is high in order of middle school 3 grade group, middle school 1 grade, middle school 2 grade, elementary school 1, 2 grade group, and 3, 4 grade. In gender, schoolboy is high than schoolgirl, as well is high social, play activities, rule and law, interpersonal skills, responsibility and self care, while schoolgirl is high than schoolboy in self-esteem.

Third,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earing attitud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social competencies. Especially,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 at sub-domains of social competencies in autonomous rearing attitude. Therefore,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more rearing attitud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is autonomous, the more social competencies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is improve.

key words : Social Adaptive Skills, Rearing Attitude, Mental Retardation

K C I